opusdei.org

## 대림 3주일 (기뻐하여 라 주일) 묵상

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.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.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자격조차 없다.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

2021-12-11

₩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. "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 까?"

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. "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. 먹을 것을 가진 사람 도 그렇게 하여라."

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, "스승님,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?" 하자, 13 요한은 그들에게 "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."하고 일렀다.

14 군사들도 그에게 "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?" 하고 묻자, 요한은 그들에게 "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." 하고 일렀다.

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, 모 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 까 하고 생각하였다.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. "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.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.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자격조차 없다. 그분께서는 너희에게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

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, 알곡은 당 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 다."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.

## 묵상

오늘은 '기뻐하여라 주일(Gaudete Sunday)' 입니다. Gaudete는 '큰 기 쁨'의 위엄이 있고 격식이 있는 형태 입니다. 우리는 오늘 성 바오로의 필 리피서 4장 4절의 말씀인 "주님 안에 서 늘 기뻐하십시오. 거듭 말합니다. 기뻐하십시오!"로 미사를 시작합니 다. 하느님께서 오시기에 기쁨은 계명입니다. 어두움의 우리들의 날들이 끝나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기에 기뻐하라고 오늘 전례는 말합니다.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아드님이오고 계십니다.

주님 안에서 기쁨을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은총의 삶을 살기위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세번이나 군중들은 "저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?"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. 질문을 할 때마다 요한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. 이는 자신 이 꼭 필요한 것을 지녔던, 청빈을 지 킨 세례자 요한 자신의 본보기입니 다. 우리의 주님께서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소유하신 것이 아니고, 당신의 머리를 기댈 장 소를 가지신 것도 아닌...구유 속의 모 습으로 당신의 '물욕을 초월하심'을 보여주십니다. '물욕을 초월함'은 우 리의 마음을 진실한 기쁨으로 열어줍 니다.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로 부터 비어진다면 즐거움으로 가득찰 수 있게됩니다. 기쁨은 거룩함의 결 과입니다. 만약 당신이 기쁨의 '결 실'을 맺고자 한다면, 당신은 거룩함 의 '나무'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.

악마는 하느님을 증오하는 것만큼 즐 거움을 증오합니다. 선하게 짓는 미 소는 악마에게 있어서 파리에게 해충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. 성 베르나르도는 그의 여동생인 움벨 리나에게 "나는 네가 성녀가 될 것을 봤단다."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움 벨리나는 "정말?" 이라고 기뻐하면서 대답했습니다. 이어서 "어떻게 그것 을 알아?" 하고 물었고,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"너의 유머스러움을 잃지 않고 언제나 미소 를 짓는 모습을보면, 그것은 바로 지 옥은 결코 유머스러움이나 진실한 미 소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라는 것을 표시하는게 분명해!"

기쁨의 원천이신 마리아여, "우울함 (슬픔)은 악마의 동맹자"이기에, 언제 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. (성 호세마리아)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<a href="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aerim-3juil-gibbeohayeora-juil-mugsang/">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aerim-3juil-gibbeohayeora-juil-mugsang/</a> (2025-12-12)